

# 광주 백화점 추석장사 잘했네

### 명품세트·상품권 매출 증가 힘입어 작년보다 10% 신장

광주지역 백화점들의 올해 추석 대목 매출이 지난해 대비 두자릿수의 신장을 기록한 가운데 명품세트 등 고급품과 상품권이 잘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지역 백화점들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추석 대목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백화점부문은 명품 선물세트 실적도 크게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11%가 넘는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명품선물세트인 '파이브 스타(5-STAR)' 정육세트는 전년 대비 56%, 청과세트는 114%나 늘었으며 대목 막판의 주문량 폭주도 공급이 달려

배율이 1~2일 지연될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다.

홍삼은 25% 이상 매출 증가를 보였고 비타민, 클로렐라 등 건강보조식품도 품목에 따라 15~30%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이마트부문도 8%의 매출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생활세트(12%)와 통조림세트(25%)가 압도적인 격차로 매출액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백화점과 이마트 모두 외인 매출은 35~50% 늘어났는데 반해 양주 매출은 31~40%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추석 선물로 인기가 여전한 굴비, 한우 등 전통 상품과 홍삼, 꿀, 와인세트 등 웰빙 열풍

을 반영한 상품들이 매출 신장을 이끌면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늘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상품권을 제외한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굴비세트 30%, 정육 15%를 비롯해 건식품, 청과, 건강보조식품의 매출이 두자릿수 신장을 보였다.

백화점 상품권 매출 증가도 두드러졌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전년대비 40%나 늘었으며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0%이상 늘었다.

배송실적도 늘어 소비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되살렸다. 광주신세계는 백화점 배송건수가 1만9천여건으로 전년대비 30%, 이마트는 4천500여건

으로 10% 증가했고,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선물상당탑 실적은 20% 늘었다.

백화점들은 특히 27일부터 브랜드 세일과 함께 가을 정기세일을 잇따라 실시함으로써 1년여만에 되살아난 추석절 소비심리를 매출 극대화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7일간 브랜드세일에 이어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가을 정기세일을 실시, 유명 브랜드의 패션잡화와 의류, 생활용품 등을 20~30% 할인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김기봉 마케팅팀장은 "세일 결과를 봐야 실물경기를 가늠해 볼수 있지만 추석 매출만 보면 거의 1년여만에 소비심리가 되살아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세계 최대 초호화 유람선 부산항 입항**

세계 최대 규모의 초호화 유람선 사파이어 프린세스(Sapphire Princess, 11만 5천800t)가 승객과 승무원 등 3천 800여명을 태우고 27일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항했다. 길이 289m, 폭 50.1m에 17층 건물과 맞먹는 정도 높이의 매머드급인 이 배에는 풀장 4개, 대형 식당 4개, 극장 3개, 9홀짜리 미니골프장, 간이 결혼식장, 조깅트랙 등 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

## 을 광주지역 입주 아파트 최고가

# '운암산 I파크' 3억 9,600만원

(전용면적 211㎡)

### 건교부 추가 공시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산 I파크'가 올해 1~5월 광주지역에서 준공된 공동주택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입주한 '운암산 I파크' 211㎡(전용면적)의 공시가격이 3억9천600만원에 달하면서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광주에서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공동주택 가운데 집값이 가장 높았다.

'운암산 I파크'는 또 156㎡와 134㎡의 가격이 각각 3억2천400만원, 2억7천500만원으로 나타나 동구 계림동 '두산 위브' 154㎡(2억4천900만원)와 함께 지역 내 주택가격 상위 5위권에

대거 포함됐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는 총 6천106가구가 준공됐다. 이는 전국(11만2천297가)의 5.4% 수준으로, 전남(3천508가)을 포함할 경우 전체의 8.5%(9천614가)에 달한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4천580가구로, 광주 전체의 75%를 차지한 반면, 85㎡ 초과는 25%(1천526가)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85㎡ 이하가 전체의 96%(3천367가)를 차지할 만큼 중·소형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전국의 경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프리미어' 213㎡의 가격이 23억2천만원에 달하면서 올해 신·증축된 아파트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

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공시 대상의 41.9%인 4만7천169가구에 달했으며, 지방은 58.1%(6만5천431가)를 차지했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2.7%(9만3천163가), 3억원 초과는 17.3%(1만9천437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전체의 45.6%(5만1376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인 4천130가구로, 수도권에 96.2%(3천969가)가 집중돼 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올해 보유세 산정에 활용되지 않으며, 상속·증여세와 취득·등록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최경희기자 choice@

### 관세 장기 체납자 명단 11월께 공개

거액의 관세(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포함)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명단이 오는 11월께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7월 관세청 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 24명을 선정,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 등을 보냈으며 11월 관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고 공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재심의가 끝나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11월께 개인과 법인 등 고액 관세 체납자 24명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개 대상 숫자는 본인들의 소명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관세와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면서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들이다. /이종태기자 jilee@

# 대한조선 400억규모 유상 증자

### 내년까지 자본금 5,000억으로 증액

대주그룹은 계열사인 대한조선에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로 대한조선의 납입 자본금 총액은 537억원으로 늘었으며, 대한조선은 내년까지 자체 증자 및 외자 유치 등을 통해 자본금 총액을 5천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조선소 건립에 들어가는 현재 국내외 투자자들과

투자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조선은 현재 해남 화원반도 일대에 총 170만평 규모의 대형조선소를 건설중이며, 조선소 건립 총 투자 금액은 오는 2010년까지 2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6월 선박용 블록제작 전문업체인 대한중공업을 오픈한데 이어 지

난달 제 1도크 가동에 들어갔으며, 오는 2009년까지 초대형 도크 2기를 준공해 본격 가동에 돌입한다.

초대형 도크 2기가 준공될 경우 조 선소, 선박연진, 후관 등을 생산하는 총 170만평 규모의 조선클러스터와 함께 인근에 인구 20만명의 자족형 배후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대한조선은 현재 28억 달러 상당의 선박 31척을 수주했으며 연말까지 모두 45억 달러, 50억 이상의 수주를 목표 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농업인 불편사항 신고하세요

### 농림부, 나주 등 119곳에 신문고 설치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는 신문고가 나주에 설치된다.

농림부는 28일 나주시 남고문 앞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출장소에서 임상규 농림부장관, 농업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신문고' 현판식과 타고 행사

를 갖는다.

농업인 신문고는 이날 나주 등 전남 17곳을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118개 지역출장소와 농업연수원 등 119개소에 설치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업인 대표가 임 장관에게 농업현장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전국 최초로 신

문을 올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용수 과장은 "나주 등 각 지역의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애로사항은 농림부 신문고(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뒤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민원해소 또는 제도개선 등의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신문고에 제기된 과제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농림사업 리모델링 위원회'에 상정,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휴대전화 최고 골드번호는 '0000'

### 선호하는 뒷번호 조사

### 2위 '7777'·3위 '1004'

휴대전화 뒷번호 중 우리나라 가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골드번호는 '0000'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이달 10일부터 진행 중인 골드번호 추첨 행사의 응모현황을 1차 분

석한 결과 가장 경쟁률이 높은 번호는 '0000'으로 집계됐다.

1차 행사는 식별번호 010 다음에 따라오는 2028,2029,2080,2081,2082,2088,2084 등 6개 국번호에서 각각 200개의 골드번호를 1인당 1개씩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국번호 모두 '0000' 응모자가 가장 많아 한 국번호에 최고 1천800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KTF가 지난달 실시한 골드번호 응

모에서도 6만3천개의 추첨 대상 번호 중 '0000'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SK텔레콤, KTF 모두 '7777' 이었고 3위는 SK텔레콤은 '1004', KTF는 '1000'이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골드 번호는 예년과 유사하게 20여 개 중 80여개에 집중됐다"며 "그 외 번호는 신청자가 거의 없어서 응모만 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신청 번호가 몇개에 몰리자 홈페이지(www.tworld.com)를 통해 전일까지 번호별 신청현황을 알리기도 했다. 골드번호 추첨행사는 11월까지 진행되며 1만1천625개를 추첨한다. /연합뉴스

**RODEM** 식수업 발전 전문기업 - **로데م갤러리 신제품출시**

특별기획상품행사

인기상품 30%~최고50% 할인

RODEM 로데م갤러리

**슬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획기적인 신 기술

**1/3로 줄었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며, 소음이 적은 신 기술

**환경수령 애국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40평~200평에 무상지원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에너지효율개선기' 지원금

TEMPIA

02-955-0222 060-701-7117